

경기장 건설 '순항', 첫 테스트 이벤트 대회 성공적으로 치러

— 12개 경기장 중 6개 신설, 오각형 개·폐회식장 내년 9월 완공 예정 —

하위윤 | 강원일보 기자

20 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맞추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올림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설상 경기장 7개와 빙상 경기장 5개 등 총 12개의 경기장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선 중봉 알파인과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강릉 아이스아레나·스피드스케이팅·아이스하키(강릉·관동 각 1개씩) 등 6개 경기장은 새로 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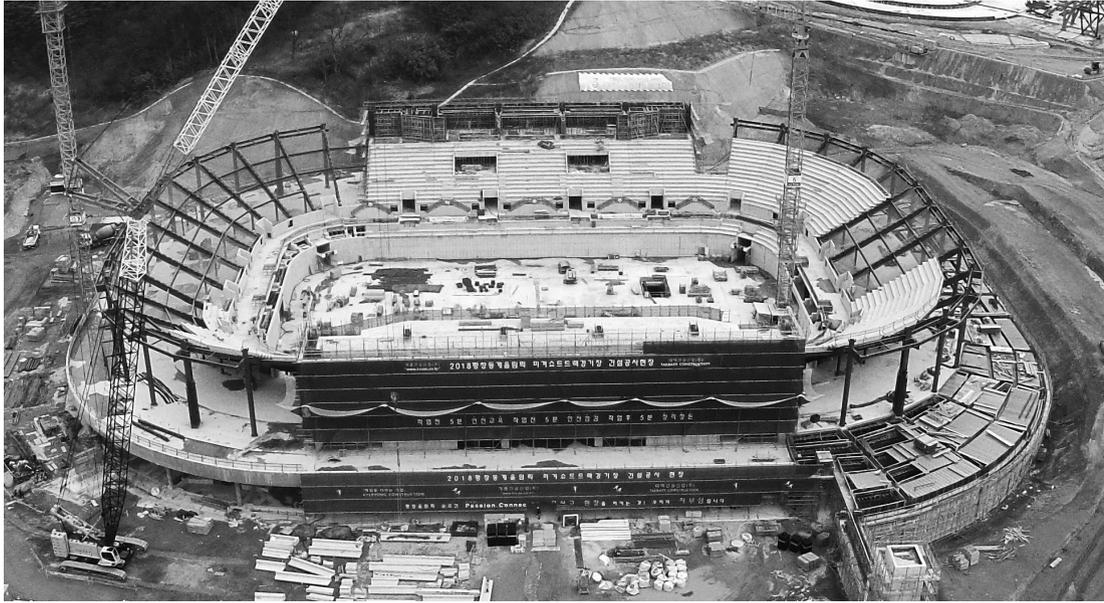
신설 경기장은 지난 1월 말 기준 평균 공정률이 53%를 넘어섰다. 보광 스노경기장과 용평 알파인경기장, 강릉 컬링센터 등 3개는 시설을 보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3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키로 했다. 이들 경기장 시설은 건설 못지않게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장의 특징은 평창 알

펜시아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것이다.

빙상 경기장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종목은 총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중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과 강릉 아이스아레나(아이스링크), 강릉 아이스하키센터, 관동 아이스하키센터는 신설하고 컬링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한다.

빙상 경기장은 모두 강릉 올림픽파크에 자리 잡는다. 지난 1월 말 공정률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27.7%, 강릉 아이스아레나 55.9%, 강릉 아이스하키센터 58%, 관동 아이스하키센터 61.4%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연면적 3만 7,485㎡ 규모(지하 2층, 지상 2층)다. 총 8,000명이 관람할 수 있으며 400m 더블 트랙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1,373억원으로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릴 강릉 아이스아레나 건설 현장(위)과 조감도(아래).

여 올해 11월까지 완공하게 된다. 관동 아이스하키센터는 연면적 1만 9,600여㎡(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6,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사업비는 561억원으로 2016년 10월 완공 계획이다. 한편, 컬링센터는 연면적 1만 7,213㎡(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3,500명이 동시에 관람 가능하다. 93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안이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연면적이 3만 2,184㎡(지하 2층, 지상 4층)인 아이스아레나는 1만 2,000석 규모로서, 총사업비 1,305억원을 투입해 오는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기장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종목이 열린다. 강릉 아이스하키센터는 연면적 2만 4,342㎡(지상 3층)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1,075억원을 들

설상 경기장

평창동계올림픽 설상 경기장은 총 7개다. 새로 짓는 경기장 2개와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경기장 1개, 기존 경기장 4개 등이다. 정선 중봉에 들어서는 알파인 경기장과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새로이 건설된다. 알파인 경기장에는 사업비 1,723억원이 투입된다. 259만여㎡ 규모다. 기존에 설계했던



보광 스노 경기장 조감도.

여자 코스는 없애고 남자 코스와 활강 연습 코스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 중이다. 착공은 2014년에 시작했으며 오는 2017년 중으로 완공이 목표다. 지난해 말까지 곤돌라 및 제설 시스템이 설치됐으며 경기 코스 건설도 완료했다. 올해 1월 트레이닝 이벤트와 함께 2월에는 테스트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봅슬레이와 루지, 스킨레톤 경기가 펼쳐질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에 들어선다. 14만 9,836㎡에 좌석 1,000개, 입석 1만 개 등 총 1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트랙 부분, 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 등의 시공이 완료됐다. 이 경기장은 2017년 2월 테스트 이벤트와 함께 슬라이딩센터 예비 인증을 추진한다.

보광 스노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활용한다. 2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올해 테스트 이벤트도 완료했다. 총사업비는 692억원이며 2017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이 경기장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 10

개 종목이 모두 열리게 된다. 용평 알파인경기장과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은 모두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첫 테스트 이벤트 성공적이나 사후 활용 방안은 미정

올 2월 초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로서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서 열릴 2016 아우디 국제 스키연맹(FIS) 스키월드컵을 앞두고서 관계자들의 우려는 컸다. 환경 훼손 논란과 기상 이변 등은 자연스레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공정 지연으로 이어졌고, 대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열린 2월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만난 외신과 선수단 등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평창조직위 역시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헬기 등을 이용해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2월 18~21일까지는 보광 스노경기장에서 2016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월드컵대회가 테스트 이벤트로 열려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개최 후 활용 방안이 결정된 경기장은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관동 하키센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강릉 컬링센터, 보광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장, 개·폐회식장 등 8곳에 그치고 있다. 이들 경기장은 대학교 체육관과 시민 체



남자 아이스하키가 개최될 강릉 하키센터 건설 현장(위)과 조감도(아래).



육시설, 종합체육관, 올림픽 기념관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정선 알파인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센터, 강릉 하키센터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사후 활용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폐회식장, 요원기 상징하는 오각형으로 건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하게 될 개·폐회식장(올림픽 플라자)은 오각형으로 확정됐다. 평창조 직위는 당초 경제성과 지형 요건을 고려해 직사각형(스타디움) 모양으로 경기장 건설을 추진했었다. 하

지만 무대 연출 등을 감안해 구조를 변경했다. 평창군 대관령면 고원훈련장에 건립되는 개·폐회식장은 음향, 영상, 조명 등 공연 연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구조 변경에 따라 관람석은 기존 4만석에서 3만 5,000석 규모로 축소되고 중앙에는 개·폐회식을 위한 무대가 들어선다. 또한 직사각형에서 오각형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 문제는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며 해결에 나선다. 오는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늦어도 5월부터는 본 공사에 들어가 2017년 9월에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은 2018년 2월 9일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리고 대회 장면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할 국제방송센터(IBC)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알펜시아 내에 건물 전체 면적 5만 1,024㎡의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1.5%의 공정률이지만, 2017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CERIK